

로컬리더스

광동학원 설립 이종록 이사장 별세

이종록(사진) 전 광동학원 이사장이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고인은 1921년 군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숙명여대, 원광대 교수를 역임했다.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조성 발현을 도와야 한다는 '창조교육학'을 정리해 『창조교육의 이론과 방법』, 『교육철학』 등을 출간했다. 54년 학교법인 광동학원을 설립한 뒤 94년 군장대, 2008년에는 국제디지털대(현 국제사이버대)를 개교했으며 교육 사업에 헌신한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순 여사와 이부덕(광동학원이사장)·명덕·미덕·승우(군장대 총장)·경우(국제사이버대 부총장)씨 등 2남 3녀가 있다. 빈소는 군산 은파장례문화원이며 발인은 6일 오전 10시, 학교법인 광동학원장으로 거행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세아베스틸 저소득 가정 지원 여름용품 군산시에 기탁

(주)세아베스틸이 이른 폭염으로 혹서기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돕기 위해 앞장서 미담이 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4일 저소득가정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250대와 여름물품 250채(183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주)세아베스틸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저소득가정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세아베스틸의 여름나기 성품 후원은 올해로 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7000만원 상당의 여름 물품을 관내 저소득가정에 지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KT 위즈 퓨처스리그 상무전 9일 SPOTV에서 생중계

익산에 통지를 뜬 KT 위즈 2군과 상무와의 경기가 오는 9일 오후 7시 SPOTV에서 생중계된다.

퓨처스리그는 4월8일~8월7일까지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각 6개 팀이 참여해 경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남부리그 2위인 KT위즈는 8일~10일까지 익산야구장에서 남부리그 1위인 상무와 홈경기를 펼친다.

KBO 퓨처스리그 중계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및 KBO 공식홈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 후 KT위즈는 두산과 7월22일~24일, 26~28일 경찰청, 8월 5~7일 고양화성과 각각 홈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KT 위즈 프로야구 2군 선수단 75명이 올해 익산에 자리 잡으면서 KT 스포츠는 인조잔디구장 외야 헬스 설치와 안전펜스 교체, 휴거장 마스터 보강 등 2억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시설보강을 마쳤다. 속속 팜빌딩에 아파트 11동과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퓨처스리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KT 위즈 프로 2군 선수단의 지역 상주로 선수단 운영비 22억원과 생산유발효과 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1억원, 원정팀 방문에 따른 효과 2억원 등 10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산단 우수기업 유치 잇따라

양정바이오푸드 등 11곳과 협약 체결 2,107억원 투자 775명 고용창출

익산시가 그동안 기업유치를 시정 주요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유치를 위한 정현을 익산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2016년 상반기 (주)양정바이오푸드, (주)키원상사 등 11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107억원의 투자와 775명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하림식품 및 (주)KS푸드 등 6개 업체와 81,795㎡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432억원의 투자와 520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은 물론 전 직원 및 시민의 기업유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현을 시장은 7월4일 전언에 유치

한 식품기업 S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익산시 대표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농산물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윤창출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업체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 시장은 "익산시는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전 직원과 시민의 참여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고군산군도 연결로 부분개통식 교통대란 예상

군산시, 무너도 주차 시설 전문 대중교통 추가·자전거 대여 등 관광객 불편 최소화

군산시가 5일 고군산군도 연결로 부분개통식에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며 자가용 이용 자제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총 8.77km 중 신시도~무너도 구간 4.38km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오늘 부분개통되며 이 도로를 통해 자동차로 무너도까지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무너도에 주차 시설이 전문 한 상태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군산시는 방조제 입구에 주차장 19,500㎡를 조성해 1,030면의 주차공간 마련, 교통안내소 및 통제소 2개소 설치, 6개 지점 주차질서 유도원 배치(평균 10명, 휴일 20명), 시내버스 노선 추가, 화장실 및 안내소 설치 등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2대(30분 간격, 42회), 공휴일에는 3대(20분 간격, 62회)를 추가로 신설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를 위해 안전시설과 공공자전거 대여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김왕원 군산부시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등으로 고군산군도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혼잡 및 정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보도, 자전거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그린바이텍 직원들 낭산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익산 낭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그린바이텍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주)그린바이텍(사장 김윤배)은 그간 몇몇 직원들이 모여 소극적으로 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을 올해 초 기업내 자원봉사단체로 조직화하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여명의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낭산농공단지 일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잡초를 말끔히 제거했다.

자원봉사단장 김윤배 본부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 힘은 들었지만 말끔해진 거리를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항포기업으로서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린그룹 계열사인 (주)그린바이텍은 7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분유가공을 담



(주)그린바이텍 30여명의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낭산농공단지 일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잡초를 말끔히 제거했다.

당하는 건설한 회사로 사회공헌활동을 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3월 기업지원봉사

/익산=장왕원기자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 국제미용기능대회 매달 잔치

커트·퍼머넌트 등 부분 대상·금은동 18개 획득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학교장 서순애)는 "제11회 BETA컵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에 과정평가형 미용하여 입문 훈련생 18명이 지난 5월 9일자 입문해서 6개월 과정 중 2개월 남짓 수련과정에서 커트와 퍼머넌트 등 부분에서 대상 및 금은동 메달 18개를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KBS스포츠헤드 제2체육관(구88체육관)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미용훈련생 18명과 심사위원 3명 중 2명 등의 메달 획득의 영예를 거뒀다.

이날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의 35개 교육기관 등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했으며 서순애 심사위원, 정은숙 대회장 이상여 부회장, 정향옥 부회장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노남집 자문교수, 이순덕 한국미용협회장, 서영교 국회의원, 노홍래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박법계 국회의원, 정용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1200여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성대히 치러졌다.



이 대회 주최측은 "대회 개최 목적은 신지식인의 교육메카와 정보화 및 문화사이에 미용인의 위상을 높이면서 뷰티산업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서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뷰티기술을 배양하고 차세대 뷰티타이스트를 배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의 경기종목은 6개부분(헤어,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남성미용) 27종목 중 커트, 퍼머넌트 종목에서 본교 학생부 수장자 명단은 대상 최선애, 금상(박남희,백공주,이지훈,채윤희,최규리,최은옥),은상(강준호,김수남,배은진,오아연,최예슬,최은경,한찬희), 동상(박병희,소현경,강세미)등이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의회 의장 소병홍·부의장 김정수 의원 선출

익산시의회 소병홍의원(어양, 팔봉 지역구)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대 후반기의 의장에 선출됐다. 4일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제7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소병홍의원은 재직의원 25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2018년 6월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소병홍 의장



김정수 부의장

신임 소병홍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로 부족한 자에게 의장이라는 과중한 직책에 당선시켜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의원님들 자존심을 지키고, 또한 의원님, 집행부,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며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소병홍 의장은 3선(56,7대)의원으로서 그동안 제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의회내 부

드러운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시민분위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부의장에는 김정수 의원(남중 신동 지역구)이 재직의원 25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7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김정수 부의장은 3선(56,7대) 의원으로 "신임 의정부를 도와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부족한 없이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의회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강경숙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는 김주연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동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연식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의회 의장 박정희·부의장 김경구 의원 당선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당 박정희 의원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경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정희 의장



김경구 부의장

군산시의회는 4일 오전 제195회 임시회를 개최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직 의원 24명 중 14표를 얻은 박정희(3선) 의원은 10표를 획득한 국민의당 정갑수(3선) 의원을 누르고 군산시의회 첫 여성시

장에 선출됐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구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경구(5선) 의원과 국민의당 김영일(재선) 의원이 경합을 벌였으나, 3차 결선 투표까지 한 결과 총 24표 중 12표 12 투표가 나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 의해 연장자인 김경구 의원이 당선됐다.

박정희 의원은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행하고 감성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되고 발전된 지방자치를 위해 미력하나마 시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참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의회상을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세워 지방의회에서도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운영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늘푸른학교 양육자 학습자 아름다운 도전 성공

문해교육의 산실인 군산 늘푸른학교 양육자(65·여) 학습자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다. 양육자회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른 채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오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군산늘푸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늘푸른학교를 다니지 2년만에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

양육자회는 농사일과 병행하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문해교육사의 도움으로 수업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세 번 만에 운전면허 발급시험에 합격했고 최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군산 늘푸른학교는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700여명의 문해학습자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위 낮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학습자들은 문해교육사의 노고와 열정적인 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워 한자자 격시험에 합격하고, 더 나아가 점검고사시에 합격하고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군산늘푸른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80여명의 학습자들이 초등학력 증빙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양육자회는 "군산늘푸른학교가 있었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며 "늘푸른학교 교장인 문동신 시장님과 담당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군산보건소는 수족구병이 2009년 표본감시 도입 이후 매추 최고치를 갈 신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미 전·후 손 씻기 생활화와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한다. 수족구병 의심 증상은 ▲39°C 이상의 고열이나 38°C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보건소는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종합병원에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보건소관계자는 "습 발, 인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